

정부 지원 '사각지대' 중기·소상공인 살리기

광주시 광산구 '광산경제백신회의' 발족

10억원 규모 펀드 조성 ...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별도의 추경예산까지 더해 지역 공동체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나선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지역 경제주체가 함께 한 '광산경제백신회의'라는 협의 기구를 구성, 구청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한 '광산경제백신회의'는 광

산구 관내 경제인들이 주축이 된 가운데 민·관·산·학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경제위기극복 범시민 운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10억원의 '펀딩 모금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은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소외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제 주체를 돕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또 소위원회별로 수시회의를 개최해 민생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만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협의체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로 자신의 4개월분 급여 30%인 10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달 31일 740억원이 증액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광산형 시민수당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 3일부터 지원사업대상자를 공고하고 모집중이다.

이번 '시민수당지원사업'은 노동시장에

서 배제된 실직자 등을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자원봉사 같은 공동체 노동에 참여시켜 그 대가를 지자체가 지급하는 사회적 임금 성격이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또 위기에 놓인 시민을 돕기 위해 '시민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극복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광산구는 우선 '시민수당지원사업' 관련해 오는 13일까지 일자리 분야 5개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선발된 주민은 광산구 생활임금 지급 1만353원을 적용받고 주 14-40시간 면 마스크 제작 및 보건용 마스크 선순환 보급 업무 등에 투입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등 6만여 가구에 372억원

1인 가구 40만원·4인 가구 108만원 ... 상품권 형태로

광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6만여 가구로, 국비 372억원을 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이날부터 시작된 지원금 지급은 급여자 격과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 생계·의료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다. 기초생활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이날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사전 휴대전화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대상 자격별로 지급일자를 달리해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광주상생카드와 은누리상품권을 혼용해 지급되며,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역 내 점포에서 사용하면 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류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모든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므로 행정복지센터 안내에 따라 수령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급받은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유아용 마스크 1만여장 제작 어린이집에 비치
광주지역 어린이집연합회원 70여 명이 지난 7일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2층 강의실에서 영유아용 마스크 1만여장을 제작하고 있다. 회원들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마스크를 제작해 개원 후 영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비치할 예정이다.

광주시 광산구, '행복정책 주민 아이디어' 7건 선정

광주 광산구는 최근 '제1차 광산구 행복정책 주민 아이디어 공모' 심사를 마치고, 우수제안 7건을 최종 선정했다.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에는 총 12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광산구는 우수제안 7건을 부서 검토와 온라인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결정했다.

광산구 홈페이지와 모바일 플랫폼 '광산ON'을 통해 실시한 온라인 주민 선호도 조사에는 2800여 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광산구가 최종 선정된 제안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필요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해법을 제시한 아이디어들이다.

최고상인 금상은 '우리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이 차지했으며, 은상에는 '행복장난감으로 시작되는 우리마을 공동체 육아나눔'과 '출산가정의 생활 속 불편개선 지원정책'이 선정됐다. 동상은 '포장용기 설치지 방법 인터넷경연 및 우수 노하우 공유', '행복지식 쌓아나가는 광산구'가 받았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청년 활력프로젝트' 참여 단체 모집

광주시 광산구는 8일 "청년 활력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참여할 각 분야 기획과 운영을 담당할 보조사업자를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의 다양한 삶을 응원하고 자유로운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에는 세 가지 주제인 ▲몸 건강 ▲마음 건강 ▲공간지원 분야에서 청년활동을 주도하거나 뒷받침할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

몸 건강을 위한 '우리 동네 청년 체력

장'에는 마을 운동시설을 발굴하고 운동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업이, 공간지원 유형인 '우리동네 청년 라운지'에는 동네 카페를 청년공간으로 발굴하고 각종 모임을 연결·지원하는 사업이 각각 응모 대상이다.

광산구는 또 마음 건강을 위한 '모바일 공동체 인사이트 아웃'을 통해 사회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청년의 모바일 정서공동체 심리지원 실행 단체도 모집 중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전국 최상위 평가

환경부 평가 S등급 획득

자체 교육콘텐츠 활용

녹색소비문화 확산 등 기여

광주시는 "환경부가 주관한 '2019년 전국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정기평가'에서 광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2018년 양동 지하철역사에 120㎡ 규모로 설치된 환경부 지정기관으로, 광주시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 소비자 양성,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녹색제품 생산 및 유통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활발한 활동을 통한 조직운영, 사업실적, 사업추진 노력

등 3개분야 13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분야별로는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콘텐츠와 교재를 제작해 녹색 소비문화 확산에 노력한 점, 지역 내 녹색제품 생산 확대를 위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시·군·구 단위 환경표지인증명령을 열고 영세 기업이 환경표지인증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과 수수료를 지원한 점,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자치구 등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업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용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지원을 통해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관내 노후 가로등 LED로 교체

의재로 등 13개 노선 1030개

광주시는 "야간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2억원을 들여 관내 노후 가로등을 LED로 교체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동구 의재로·천변좌로·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서구 회재로·무진대로·운천로·자유로·상무지구 ▲남구 송암로·금화로 ▲북구 면양로·설죽로 ▲광산구 어등대로 등 13개 노선 노후 가로등 1030개이며, 오는 7월말까지 노후 등주를

포함해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LED 교체 시 가로등 표준규격화에 따라 기존 가로등 등기구를 재사용하고, LED모듈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임남진 광주시 도로과장은 "오래되고 어두운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 운전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도로 조명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참사 32년 (주)YHB ECO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